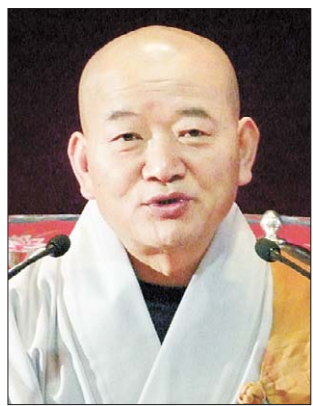


“부처님처럼 당당하게 살자”

통도사 출가열반주간 정진기도 봉행

열반절 기간을 맞아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정진의 시간이 마련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음력 2월 8~15일 출가열반주간 8일간 설법전에서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란 주제로 매일 사분 정진기도를 봉행했다. 8일간 새벽 3시와 오전 10시, 오후 2시와 저녁 6시 30분 등 하루 4차례 정진기도를 갖고, ‘팔상성도’에 관한 여덟 스님의 8가지 법문이 날마다 펼쳐졌다. 입재일인 3월 4일 부주지 현근 스님의 ‘도솔대의상’, 5일 감사 광우 스님의 ‘비발강생상’, 6일 도동 스님의 ‘사문유관상’, 7일 울주 혜남 스님의 ‘유성출가상’, 8일 강주 우진 스님의 ‘설산수도상’, 9일 울원장 덕문 스님의 ‘수하왕마상’, 10일 울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출가열반주간을 맞아 팔상성도 법문을 했다.

감사 진목 스님의 ‘녹원전법상’, 마지막 날인 11일 주지 정우 스님의 ‘쌍립열반상’으로 회향했다. 이번 정진기도 기간에는 입재 및 회향 각 700여명, 하루 평균 5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어느 해

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정우 스님은 회향 법문에서 “부처님은 길 위에서 태어나고, 출가 후 수행하며 열반에 들기까지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정진하고 설법하셨다”며 “진정한 출가는 세상을 등지고 현실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진기도를 통해 모두가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우리로 부처님의 생애와 같이 당당하고, 뚜렷한 모습으로 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고 말했다. 또한, 정우 스님과 고향 월하 스님의 열반 당시 일화를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설화와 함께 설법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한국불교미륵종 창종 17주년

보살계 산림 수레법회 봉행



한국불교미륵종이 창종 제17주년을 맞아 3월 8일 관음정사에서 창종 기념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미륵종은 창종 제17주년을 맞아 3월 8일 오전 10시 경남 김해시 진례면 미륵종 총본산 관음정사 승려 교육장에서 창종 기념식 및 보살계 산림수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엔 연화 대종사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송정 스님, 중앙총회회장 해월 스님 및 종단 각부원장과 종도스님 120명 그리고 전국 각말사 신도 1000여 명과 경남 김해지역 기관장들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종정대행)은 인사말에서 “미륵종 종단 창종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7년간 총무원 행정을 믿고 따라온 종도스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창종기념식 후 가진 보살계 산림수레법회는 전국 각말사에서 등 록한 800명의 수계자들에게 연화 대종사의 보살계 의미와 가르침을 받고 연비의식을 하는 것으로 회향했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법륜 굴리는 당신이 부처님”

부산개인택시법륜회 10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 부산개인택시법륜회(회장 김택천, 이하 법륜회)가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을 맞은 법륜회가 축하 떡을 자르며 자축하고 있다.

법륜회(회장 김택천)는 3월 12일 오후 2시 흥법사(주지 심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법회는 발원문, 연혁 및 경과보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회장인사, 격려사 및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제하락으로 어려운 이때 한해동안 어렵게 마련한 장학금으로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총 800여 만원을 전달해 더욱 뜻깊은 10주년을 맞았다. 법륜회는 매년 총회시, 그간 택시 내 비치한 모금함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후원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한 불법홍포에 노력해왔다. 김택천 회장은 “지난 10년

의 연륜과 회원들의 불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봉사하고 포교를 겸비해 지역발전과 부산불교발전에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덕까지 없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며, 세상이 변해도 오직 한마음으로 묵묵히 법륜을 굴리는 법륜회원 모두가 부처님”이라며 10주년을 축하했다.

박지원 기자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되길”

석암장학회 제69기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 내원정사 주지)는 3월 8일 오전 11시 내원정사 만발전에서 제69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이 동국대학교 14명에게 전달됐다.

정련 스님은 “장학회 1기생부터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선배장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통해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곳에 모인 학생들도 귀한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올해부터 장학금 전달에 석암장학생 수련대회 및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수해야하는 필수과정이 신설됐다. 실제 제69기 장학금인 박상준(동국대학원미술학과 1) 학생은 지난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내원정사에서 불교문화재 연구를

하고, 권원범(동국대학의학과 3) 학생은 거제 마하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전공분야와 연관된 봉사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1971년 故 석암 스님의 인재불사 뜻을 기려 설립한 이후, 총 69회에 걸쳐 1059명의 학생에게 4억37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박지원 기자

상연 스님 취임

사하구사암련 회장

부산광역시 사하구사암련회회는 3월 10일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에 상연 스님(극락암 주지)을 선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1부 축하공연에 이어 2부 본 행사에서



사하구사암련 신임 회장 상연 스님.

발원문 낭독, 전임회장 보각 스님 이임사, 신임회장 취임사, 감사패 시상, 신임 임원진 소개, 축사, 부산시 불교연합회 장 정여 스님의 회고 전달 및 축하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상연 스님은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국으로 힘들어하는 불자들이 신명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사하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전임회장 보각 스님은 ‘이별의 행복’이란 제목의 이임사를 통해 “우리 사하불교가 세계불교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재무 및 원주 역할, 부산 금광사 주지, 김해 화은사 주지, 남원 봉황사 주지, 왜곡극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상연 스님은 2011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박지원 기자

“전문 넓혀 아이들 꿈 이루게 할 터”

불국토를 찾아서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절마당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 좁았다. 9일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통도사 극락암본원 원오사 법당을 가득 채운 어린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두발 쪽 뺏고 반쯤 드러누워서, 감히 웃고 떠들고 야단법석이었다. 정관 스님(사진)은 이들 악동을 바라보며 소년과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날은 원오사에 ‘꿈나무 공부방’이 처음 문을 여는 날이다. 법당 오른쪽에는 오늘 주인공 악동 15인방, 왼쪽에는 이들을 마음으로 지켜줄 든든한 후원자들이 자리해 개원을 축하했다.

정관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어린이들이 내일의 아인슈타인, 나이팅게일로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배워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아이들은 모두 ‘든솔학교’ 출신이다. ‘든솔학교’는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역내 방과 후 홀로 있는 초등학생 4·5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방과 후 교실이다. 하지만 이곳을 졸업해야하는 6학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정관 스님이 경내에 ‘꿈나무 공부방’을 개설하면서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된 것.

이들 15명의 악동들을 정관 스님이 귀하게 여기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저는 태안반도 출신으로 자릴 때까지 기차 한 번 구경 못해 본 시골아이였어요. 교육·문화 면에서도 견문이 짧으니 누군가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늘 목장주인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거나 여자아

이들은 영양사, 조리사 등을 대답하며 자신 없어 했다고 한다.

“서울이나 도시 아이들은 달랠요. 국제번호사, 선생님, CEO 등 견문이 넓으니 꿈도 구체적인데, 이 아이들은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더 많이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스님의 원력을 따른 ‘꿈나무 공부방’ 후원자는 벌써 264명에 이른다. 후원금도 5000원부터 25만원까지 다양하다. 처음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정관 스님이

었지만 이제 신도들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양질의 교육환경으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됐다.

“한동안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았지만 재정을 고민했어요. 결국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 부처님과 신도님들을 믿고 사소한 한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아이들이 어렵게 찾은 희망과 즐거움을 잃게 해선 안되니까요.”

이제 공부방 한편에는 후원회가 마련해준 15개의 책상과 15개의 색연필, 15개의 크레파스 등 예쁜 학용품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관 스님이 원오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달라진 점은 바로 어린이불자들이 삼삼오오 손잡고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공부방과 매주 일요일 어린이법회를 통해, 전혀 불교에 대해 몰랐던 아이들이 “스님은 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은 결혼을 해요?” “스님은 머리가 왜 빛나리세요?”라고 물어보며 천진하게 다가와, 어느새 스님을 좋아하고 또 절에 놀러오고 싶어했다. 물질을 아닌 진심으로 다가서는 스님의 마음이 아이들과 통했다.

이것이 정관 스님의 포교 비결이다. (051)542-7949 박지원 기자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최고의 비법! 백초귀장술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가지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저자 백초 백초스님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선) 농협 023-02-478822 / 신한 010-3813-4443
Tel: 02) 3667-4446 / H.P: 010-3813-4443

百超律歷學堂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3월 24일(화요일)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100만원

특기사항

-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교육 훈련비
-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일교율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